

## 파리 기후협정, 7 가지 주요 이슈

### 12 월 기후 정상회의에서 정부들이 다루어야 할 주요 개념들은?

출처= <http://www.rtcc.org/2015/02/13/7-burning-issues-on-the-road-to-a-paris-climate-deal/#sthash.gQBHI2dN.dpuf>

2015.2.13, **Sophie Yeo, Ed King** / 2 월 제네바에서 6 일간 개최된 공식협상회의(ADP)\*에서 참가한 200 여 개 정부들의 요구사항이 마침내 드러났다.

\*2015 년 기후변화 공식협상회의(ADP) 일정: 2 월(제네바), 6 월(본), 9 월(본), 10 월(본), 12 월 제 21 차 당사국총회(COP21)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희소식이지만, 여러 옵션과 제안들을 종합해보니, 공식 협상문서는 총 86 페이지에 달했다.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까지 실질적인 목표만을 담은 문서로 간략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마지막 협상문에 담길만한 주제를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선정해보았다. 마지막 협상문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지만, 다음의 이슈들은 신기후협정과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 항공 탄소배출 가격?

항공 및 운송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분야다. 항공은 세계 탄소 배출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출량 측정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규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회의에서 도출된 문서는 항공 및 운송분야 배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당사국들이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배출량 저감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규제기구로서 관련된 정책 개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 기후정의

볼리비아는 국제 기후정의법원(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tribunal)을 신기후협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파리회의에서 큰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는 2010 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이 설립을 주장했던 내용으로, 그 이후 거의 진전된 바는 없다.

협상문에 따르면 법원은 선진국이 신기후협정 하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힘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의 벽을 허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 설립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접근방식을 미국이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

## 경제 메커니즘

배출량 규제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브라질의 제안이 협정문에 포함된다면, 탄소거래가 추진력을 받을 것이다.

이 메커니즘에는 배출거래시스템과 개도국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유엔청정개발메커니즘(CDM), 즉 CDM+ 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배출권을 거래하며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전반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절감이라는 인센티브로 신흥국도 배출거래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는 거래라는 방식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 석유세

협상문은 원유 수출업자를 위한 제안도 담고 있다. 에콰도르 석유세(Daly-Correa)를 모델로 한 것인데, 정부가 석유 수출 부국에서 빈곤 개도국으로 돈을 이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이미 이 안을 OPEC 에 제출했으며, 석유 1 배럴당 3-5%에 달하는 세수 전액을 녹색기후기금(GCF)에 직접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협상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비슷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배출량 제로

가장 야심찬 수준의 목표-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가 여전히 협상안 중에 하나이다.

이 목표는 화석연료 산업의 정당성을 무력화하려는 시민사회에서 폭넓고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는 지구온난화 2도씨 제한을 위해 205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40-70% 배출감축을 제안한 IPCC 목표보다도 훨씬 급진적이다.

이와 비슷한 안은 2050년까지 선진국이 탈탄소화를 달성하며, 빈국들은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인권과 성

인권에 대한 문구가 처음 포함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독자적인 이슈가 아니며, 기후라는 자연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작년 페루 리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토착민들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협상문서는 모든 국가가 “양성평등을 지침으로 하며, 모든 기후관련 조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전적이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독려하면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양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 보건

보건에 대한 언급도 기후변화가 인류의 모든 발전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상문서는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가장 높은 보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 베이징과 같은 산업도시 주민들은 석탄 연소의 결과로 대기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종종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 신기후변화체제 협상 로드맵

